

5·18 40주년 문화로 만나다

서울의 봄, 광주의 빛...평화를 꽃 피우다

80년, 그날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

국립광주박물관, '푸른달 열여드레' 체험·전시

<8> '오월평화페스티벌'

40년 전 5월 광주 시민들은 민주·인권·평화를 외치며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의 유산을 공유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오월평화페스티벌'이 열린다. 서울시 광주시가 공동으로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네이버 5·18 TV를 통해 5월 한달간 만날 수 있다.

'오월평화페스티벌'은 '서울의 봄, 광주의 빛'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며 문학, 무용,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4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40주년 기념 공연 '오월음악극', '오월음악회', '오월 무용' ▲5·18 문학 낭독 '오월낭독회' ▲5·18영화제 '시네광주 1980' ▲특집 다큐멘터리 '왜 나를 썼지?' ▲5·18 40주년 특별전시회 '넘어 넘어:진실을 말하는 용기' 등이 다.

지난 14일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린 오월음악극 '사랑이여'는 18일 오후 8시에 업로드 된다. 작품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5·18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의미를 조명하는 공연으로 사물놀이, 전통음악, 현대무용을 융합해 선보인다. 김덕수, 양상블시나위, LDP무용단 등이 무대에 오른다.



서울·광주 공동, 네이버 5·18TV 업로드

음악극 '사랑이여'·특별전 '넘어 넘어' 등

문학·무용·음악·영화·낭독 등 5월 한달간

오월무용 '십일, 맨드라미꽃처럼 붉은'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기록을 한국창작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18일 오후 8시 5·18 TV를 통해 생중계로 만날 수 있다. 1장 '통곡하는 그녀들', 2장 '남겨진 자들의 두려움과 저항', 3장 '그날이 오면 다시 찾아오는 아픔', 4장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애도', 5장 '씻김과 해원'으로 구성됐으며 연출은 김매자가, 공동안무는 장무희 최지연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안덕기 교수가 맡았다. 무대에는 광주돈움무용단 박정은·송정원·김연우 등을 비롯해 장무희 단원, ALTIMEETS 무용단원 등이 오른다.

5·18 40주년 특별전 '넘어 넘어: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18~28일 만날 수 있다. 서울기록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초판본, 개정판, 해외본 등 10종과 이 책의 숨은 저자였던 이재의 작가의 취재노트 등을 중심으로 70여점의 기록물을 전시한다.

80년 5월을 담은 장·단편 영화 15편, 국가폭력과 민주항쟁을 다룬 해외 장편영화 3편 등 약 60여 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영화제 '시네광주 1980'은 21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 TV '시네광주 1980' 채널을 통해 상영된다.

영화제에서는 '오! 꿈의 나라', '부활의 노래', '꽃잎', '박하사탕', '26년' 등 5·18을 주제로 한 한국영화를 비롯해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작 지원한 5·18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와!와!와!와!', '중려의 오월', '광주비디오', '낙화잔향' 등 12편을 최초로 상영한다.

오월음악회 '오월에 부치는 편지'는 23일 5·18 TV에서 만날



김덕수



구자범

'김진덕 여사의 오월-빛고을시편', 나희덕 '그는 먹구름 속에 들어계셨다', 이송희 '518번 버스를 타고', 장이지 '쪽문 너머' 등 시 10편이 음악, 무용, 그림 등이 결합된 낭독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창작그룹 노니, 맨스씨어터 팀, 일일댄스프로젝트, R2D2 스튜디오 등이 출연한다.

'오월평화페스티벌' 프로그램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생중계를 놓쳤더라도 공연 이후 5·18 TV에 게시되는 VOD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영화 '오월 상생'



'대형 오월길 컬러링 체험존' 장면.

<광주박물관 제공>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날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체험과 전시를 연다.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시관 2층에서 열리는 '푸른달 열여드레: 1980년, 그날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이 그것. 5·18의 진실과 의미를 현 세대에게도 쉽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5·18 당시 침묵하는 언론을 대신해 광주 진실을 알리는 '방탈출 체험공간' ▲5·18 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전남대학교 정문, 전남도청 등)를 배경으로 한 '대형 오월길 컬러링 체험존 및 참여전시' 등이다.

특히 방탈출 체험공간 '518527'은 추리·체험 콘텐트로, 5·18 유공자와 가족들이 체험 벽화 작업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곳은 5·18 당시 시민기자가 되는 설정에서 시작한다. 당시 계엄군 언론검열에 의해 침묵한 주류 언론을 대신해 시민 스스로 탄생시킨 민중언론(투사회보)을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제한된 시간에 단서 등을 조합해 탈출의 실마리를 얻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히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며,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다.

또한 '대형 오월길 컬러링 체험존 및 참여전시'에서는 주요 사적지와 장면에 색을 칠하는 체험이다. 벽면의 다양한 사적지 공간에 색을 입힘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다.

아울러 체험·전시와 연계된 '푸른달 열여드레, SNS 소문내기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박물관 누리집 이벤트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SNS에 올리고 공유 게시물 URL을 이벤트 게시판에 작성하면 된다. 총 40명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